

#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에 미치는 부모갈등, 부모관련 스트레스,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의 영향

Children Coping with Stress : Effects of Inter-Parental Conflicts, Parent-related Stress  
and Communication between Parent-Child

임주희(Joo Hee Lim)<sup>1)</sup>

최연실(Youn Shil Choi)<sup>2)</sup>

##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effects of parent-related variables on children's coping with stress. Subjects were 409 4th, 5th, and 6th grade children(213 boys and 196 girls) selected from three elementary schools in Seoul and Incheon. Data were analyzed by frequency, mean, and hierachical multiple regression. Major findings were that among the inter-parental conflicts perceived by the children, self-blame and triangulation affects children's coping behavior resulting in children's aggressive and passive/avoidant behaviors. The more children experience parent-related stress, the more children show aggressive and passive/avoidant coping behaviors. With more open-communication in parent-child relations, children's coping shows more active and social support seeking coping behaviors during stress situations.

**Key Words** : 스트레스 대처행동(coping behaviors with stress), 부모갈등 (interparental conflicts), 부모관련 스트레스(parent-related stress),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communication between parent and child).

## I. 서 론

개인이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생활사건들

은 여러 가지 스트레스 상황으로 이어지게 되고 아동도 성인 못지않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 학령기의 아동은 발달단계상 신체적·인지

<sup>1)</sup> 상명대학교 가족복지학과 석사

<sup>2)</sup> 상명대학교 가족복지학과 부교수

**Corresponding Author** : Youn Shil Choi, Dept. of Family Welfare, Sangmyung Univ., 7 Hongji-Dong, Jongro-Gu, Seoul 100-743, Korea  
E-mail : yschoi@smu.ac.kr

적 변화를 급격하게 경험하면서 심리적·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처해있게 되며, 가족관계뿐 아니라 학교와 또래집단이라는 새로운 환경과 사회적 대인관계를 경험하면서 많은 적응적 요구를 겪게 되기 때문에 이전보다 더 다양한 스트레스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스트레스는 인간이 출생과 더불어 전 생애에 걸쳐 불가피하게 겪게 되는 일상 생활의 일부분이라고 볼 때 이를 완전히 제거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므로 많은 연구자들은 똑같은 스트레스를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스트레스에 의한 부정적 영향을 적게 받고 그로 인한 행동문제를 덜 보이는 개인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면서, 스트레스가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중재하는 요인에 대해 관심을 보여 왔다(Compas, Malcarne, & Fondacaro, 1988; Herman-Stahl & Peterson, 1996).

아동의 적응력을 예측함에 있어서도 스트레스의 경험 유무보다는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행동이 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사회적 부적응 및 행동문제를 보다 포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동이 스트레스에 어떠한 대처행동을 보이는지, 어떤 요인이 이러한 스트레스 대처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지금까지의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에 관한 연구들은 크게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경향으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아동의 스트레스 관련 선행 연구들은 대체로 아동의 성격이나 기질 등 아동의 개인적 요인을 중심으로 아동의 스트레스를 설명하거나(신은영·김경연, 1996; Garnezy, 1991),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을 아동을 둘러싼 환경적 요인으로 설명하거나 예측하려는(도현심, 1996; 한미현, 1993; DuBois, Felner, Brand, Adan, & Evans, 1992) 경향으로 파악될 수 있다. 스트레스 대처행동이 환경으로부터의 요구에 의

해 유발됨(Lazarus & Folkman, 1984)을 고려해 볼 때,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을 설명할 변수 규명을 위해서는 아동을 둘러싼 일차적 환경변수인 부모 변수 역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 아동은 최초의 밀접한 대인관계라고 할 수 있는 부모를 통해 세상과 대인관계, 자기 자신에 대한 도식(schema)을 형성한다. 따라서 아직 사회적·인지적으로 미성숙한 단계에 있는 아동기에 가정 내에서, 특히 부모와 직·간접적으로 경험하는 사건들은 단지 그 당시의 심리적 적응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장차 청소년 및 성인기의 심리적 적응에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아동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대처행동을 살펴본 대부분의 연구들(이현정, 1997; Compas et al., 1988; Gly-shaw, Cohen, & Towbes, 1989)은 성인 대상의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한 측정 도구를 도입하여 사용하였기 때문에 방법론적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성인의 대처행동은 문제지향적 대처행동과 정서지향적 대처행동(Lazarus & Folkman, 1984), 또는 접근적 대처행동과 회피적 대처행동(Ebata & Moos, 1991) 등과 같이 이차원적 대처행동으로 구분된다. 반면에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에 대한 Band와 Weisz (1988)의 연구에 따르면,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 중 40% 정도가 성인의 대처행동 범주에 의해 설명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은 성인과 달리 다차원적으로 구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Causey & Dubow, 1992; Phelps & Jarvis, 1994; Ryan-Wenger, 1992). 따라서 성인의 이차원적 대처행동 범주로는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을 충분히 대표하거나 설명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과 관련변수간의 관계를 살펴본 선행연구들은

성인의 이차원적 대처행동 측정도구를 아동에게 그대로 적용하였다. 그러므로 이를 근거로 아동이 지각한 부모변수에 따라 아동이 사용하는 대처행동이 어떠한 영향을 받게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기에는 미흡한 측면이 있다. 이에 따라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을 이차원적 분류가 아니라 다차원적 분류로 측정하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할 것이다.

Ayers(1991)는 아동의 대처행동을 기존의 성인관련 대처행동처럼 이원화하는 것은 자료의 손실을 유발한다고 지적하면서, 요인분석을 통해 9세에서 12세 사이 아동의 대처행동을 4개 하위차원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Phelps와 Jarvis(1994)는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을 적극적 대처, 회피적 대처, 정서 중심적 대처, 그리고 수용의 4개 하위차원으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국내 연구에서 민하영과 유안진(1998a, 1998b, 1999a, 1999b)은 스트레스 대처행동을 적극적 대처행동, 소극적 대처행동, 공격적 대처행동, 사회지지 추구적 대처행동, 회피적 대처행동의 5가지 하위범주로 구분한 바 있다.

아동의 스트레스와 스트레스 대처행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모관련 변수 중에서 부모갈등은 특히 주목을 받고 있다. 이는 함께 살고 있는 부모들 간의 불화가 아동들에 있어서 중요한 스트레스원이라는 가설에 기인한다(Harold & Conger, 1997). 실제로, 이혼 전 가정 내에서의 부모 불화는 아동의 심리적 기능에서 결혼생활의 해체보다도 더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Emery, 1982). 또한 부모갈등은 전반적인 부부의 고통보다도 더 많이 아동의 적응 문제들을 예측해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Davies & Cummings, 1994).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부모갈등이 아동에게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일관되게 보여주고 있다. 부모갈등은

다차원적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빈도, 강도, 내용, 자기비난, 위협, 삼각관계에 있어서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전의 연구들에 의하면, 분노가 표현되는 갈등 상황, 불완전하게 해결된 갈등(Cummings et al., 1981, 1989), 그리고 아동이 관련된 내용의 갈등(김소향, 1994; 박수잔, 1997; Grych, Seid, & Fincham, 1992)일 수록 아동의 반응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주로 아동의 스트레스와 관련된 것으로 아직까지는 이러한 부모갈등의 다차원적 특성에 따라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구체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드물다.

부모갈등과 더불어, 연구자들이 스트레스 대처행동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변수는 부모관련 스트레스이다. 부모관련 스트레스는 학령기 아동이 가정과 사회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성장압력 및 성취압력으로 인한 스트레스 중 큰 영향을 아동에게 미친다(민하영·유안진, 1999b). 구체적으로, 이 시기의 아동이 경험하는 일상적 스트레스들인 부모관련 스트레스, 친구로부터의 소외관련 스트레스, 친구로부터의 갈등관련 스트레스, 학업관련 스트레스, 교사관련 스트레스 중 에서, 빈도도 높고 아동의 적응 수준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부모관련 스트레스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한미현·유안진, 1995; Spirito, Stark, Grace & Stamoulis, 1991). 하지만 이러한 부모관련 스트레스가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과 어떻게 관련이 되는지 직접적으로 다룬 연구는 없었다.

한편, 부모와 자녀의 연대성과 안정성을 계속 유지하고, 부모와 자녀관계의 변화에 따른 갈등과 문제를 축소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모와 자녀 간의 개방적인 의사소통이 필요하다.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질 때, 그것은

하나의 사회적 지지로 작용하여 아동이 가정뿐 아니라 학교에서 적절히 역할을 수행하고 적응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은 부모관련 변수로서, 위에서 언급한 부모갈등이나 부모관련 스트레스와는 달리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다고 예측해 볼 수 있다. 그러나, 기존의 아동 행동문제(적응문제)와 스트레스 연구에서는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을 주로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에 초점을 두어 연구하는 경향(김인향, 1997)이 많았고, 부와 모의 독립적 영향력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대부분의 연구들이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보다는 아동의 스트레스에 더 초점을 둔 경향이 있다. 따라서 학령기 아동에 대한 부모-자녀 간 개방적 의사소통이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학령기 아동인 초등학교 4, 5, 6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부모의 특성 중에서 부모갈등, 부모관련 스트레스, 부모-자녀간의 개방적 의사소통이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과 부모갈등을 다차원적으로 다루지 못한 선행연구들의 제한점을 고려하여,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을 적극적 대처행동, 공격적 대처행동, 사회지지 추구적 대처행동, 소극/회피적 대처행동의 4개 하위차원으로 분류하고, 아동이 지각한 부모갈등을 빈도, 강도, 내용, 비난, 지각된 위협, 삼각관계의 6개 하위차원으로 분류하여 접근하였다. 그리하여 다차원적으로 구성된 부모갈등의 어떤 측면이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

다. 아울러 부모관련 스트레스와 부모-자녀간의 개방적 의사소통이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에 따라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 <연구문제 1> 부모갈등은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 <연구문제 2> 부모관련 스트레스는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 <연구문제 3>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은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 <연구문제 4>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에 미치는 부모갈등,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부모관련 스트레스의 상대적 설명력은 어떠한가?

## II. 연구방법

### 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시와 인천시 소재의 초등학교 4학년과 6학년 사이의 남녀 아동들 467명이다. 본 연구의 목적상 아직 청소년기에 속하지 않으면서 신뢰로운 자기 보고가 가능한 인지 능력을 지닌 고학년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 시기의 아동을 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학령기 아동의 경우 인지적인 면에서 새로운 인지체계 구축 및 상향된 학습능력의 기대가 가중되며(민하영 · 유안진, 1998a), 성취해야 할 여러 가지 발달과업을 갖게 되므로(김경희, 1999), 일상생활의 다양한 스트레스를 경험

하게 되기 때문이다. 또한 스트레스 대처행동은 아동 중기 이후 상황에 대한 인식과 더불어 통제가능성에 대한 인지적 발달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선행연구 결과를 참조하여 평균 연령이 10세에서 12세에 해당되는 연구대상을 선정하였다.

아동의 성별과 연령에 따른 분포를 보면, 남아가 52.1%, 여아가 47.9%로 거의 비슷하며, 연령은 9세 3.2%, 10세 34.0%, 11세 39.1%, 12세 23.7%였다. 부모의 교육수준은 부모 모두 고졸이 가장 많았다. 아버지의 경우 고졸 다음으로 대졸이 37.1%로 많았고, 중졸 이하가 11.4%, 대학원 이상이 7.4%인데 반해, 어머니의 교육수준은 대졸이 19.9%, 중졸 이하가 14.8%, 대학원 이상은 5.4%에 불과해, 어머니는 아버지보다 낮은 교육수준을 보였다. 부모의 직업은 무직에서 전문직에 이르기까지 9가지로 세분하였는데, 먼저 아버지의 직업별 분포를 보면, 자영업-사업이 32.5%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사무직이 20.2%, 생산-노무직이 14.1%의 순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직업분포에서는 전업주부가 44.1%를 차지하였다. 취업모의 직업별 분포를 보면, 자영업-사업이 18.0%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사무직이 9.3%, 판매-서비스직이 8.8%, 생산-노무직이 5.8%순으로 나타났다.

## 2. 측정 도구

### 1)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민하영과 유안진(1998a)이 개발한 아동의 일상적 스트레스 대처행동 척도를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민하영과 유안진(1998a)의 연구를 참고로 하여 적극적 대처행동(예 : 옛날에 썼던 방법이나 새로운 방법 등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한다) 5문항, 공격적 대처행동(예 : 기회를 노리고 있다가 보복한다) 5문항, 사회지지 추구적 대처행동(예 : 친한 사람에게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는 것을 부탁한다) 5문항, 소극/회피적 대처행동(예 : 혼자 조용히 운다) 8문항으로 4개 영역, 총 23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에 대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는 1점, '약간 그런 편이다'는 2점, '많이 그렇다'는 3점, '아주 많이 그렇다'는 4점으로, 전체 4점 평정척도로 평가하게 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영역의 대처행동을 많이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 척도의 전체 신뢰도 계수인 Cronbach's  $\alpha$ 는 .81이며, 하위척도별 신뢰도 계수는 적극적 대처행동 .75, 공격적 대처행동 .82, 사회지지 추구적 대처행동 .73, 소극/회피적 대처행동 .81로 나타났다.

### 2) 부모갈등

아동이 지각한 부모갈등을 측정하기 위하여 Grych 등(1992)의 CPIC(The Children's Perception of Interparental Conflict Scale)를 권영옥과 이정덕(1997)이 국내에서 번안하여 타당화한 것을 사용하였다. 최종적으로 부모갈등의 빈도(예 : 우리 부모님은 내가 모른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자주 다투시거나 의견이 맞지 않으신다) 5문항, 강도(예 : 우리 부모님은 다투실 때 화를 굉장히 많이 내신다) 6문항 및 내용(예 : 우리 부모님은 나의 학교일 때문에 자주 다투신다) 4문항과 갈등에 대한 아동의 평가에 해당되는 자기비난(예 : 우리 부모님이 다투실 때 그것은 내 탓이 아니다) 4문항, 지각된 위협(예 : 나는 우리 부모님이 다투실 때 겁이 난다) 6문항, 삼각관계(예 : 우리 엄마는 아빠와 다투실 때 내가 엄마 편을 들기 원하신다) 3문항 등 총 30개 문항의 6영역이 추출되

었다. 각 문항은 ‘그렇다’는 3점, ‘약간 그렇다’는 2점, ‘아니다’는 1점의 평정적으로 보고하도록 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이 부모갈등에 대해 부정적으로 지각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빈도, 강도, 내용, 자기비난, 지각된 위협, 삼각관계 등 각 영역의 신뢰도는  $\alpha=.63$ ,  $\alpha=.73$ ,  $\alpha=.69$ ,  $\alpha=.67$ ,  $\alpha=.81$ ,  $\alpha=.65$ 로 나타났다.

### 3) 부모관련 스트레스

부모관련 스트레스 척도는 부모와의 관계나 부모의 행동, 또는 요구 등으로 인해 아동이 경험하게 되는 갈등이나 부담감에 관한 내용들로 이루어진다. 아동의 부모관련 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한미현과 유안진(1995)이 만든 아동의 일상적 생활스트레스 척도 중 부모관련 스트레스(예 : 얼마나 아빠가 늘 공부하라고 말씀하셔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8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1점, ‘그렇지 않다’는 2점, ‘약간 그렇다’는 3점, ‘매우 그렇다’는 4점 등 전체 4점 평정 척도로 보고하도록 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이 부모와 관련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지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부모관련 스트레스의 Cronbach's  $\alpha$ 계수는 .69로 나타났다.

### 4)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을 알아보기 위하여 Barnes와 Olson(1982)의 PACI(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Inventory)를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이 질문지는 부모 또는 청소년기 자녀가 같은 내용의 질문에 대해 같은 방법으로 응답할 수 있도록 부모용 질문지(parent form)와 청소년 자녀용 질문지(adolescent form)가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자녀용 질문지를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부와 모, 각각에 대하여 개방적 의사소통

(예 : 나는 주저함 없이 아버지/어머니께 내 주장을 이야기한다) 5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기보고식 5점 평정척도로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별로 그렇지 않다’ 2점, ‘보통이다’ 3점, ‘약간 그렇다’ 4점, ‘항상 그렇다’ 5점으로 평가하도록 되어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의사소통이 개방적이고 긍정적임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 PACI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를 산출한 결과, 아버지와의 의사소통에 대한 5문항은 .71, 어머니와의 의사소통에 대한 5문항은 .74로 나타났다.

## 3. 연구 절차

자료 수집은 2002년 4월부터 5월까지 서울과 인천에 위치한 초등학교 3곳의 4학년 4학급, 5학년 5학급, 6학년 4학급 총 13학급의 아동 478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회수된 질문지 중 응답 내용이 불충분한 경우, 부모의 이혼이나 사망으로 부모중 한 분이라도 안 계신 가정의 아동들과 결석으로 인한 무응답 등을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수집된 409사례가 자료분석에 사용되었다.

## 4.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AS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성격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 평균, 백분율을 산출하고, 전반적인 경향과 정규분포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둘째, 연구문제 1, 2, 3과 관련하여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갈등, 부모관련 스트레스,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의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중다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연구문제 4와 관련하여, 부모갈등, 부모관

런 스트레스,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이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독립변수들 간의 적률상관계수와 분산확대인자(VIF)를 산출하고 난 후, 연구문제 1, 2, 3에서 표준화된 회귀 계수( $\beta$ )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난 변인에 대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외에 아동학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3인으로부터 척도내용의 타당도 검증은 받았으며, 척도의 신뢰도 검증은 위해서는 내적 합치도를 알아보는 Cronbach's  $\alpha$  계수를 산출하였다.

### III. 결과 분석

#### 1. 부모갈등이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에 미치는 영향

부모갈등이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중다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부모갈등은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에 유의한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삼각관계가 공격적 대처행동( $\beta=.16, p<.01$ )과 소극/회피적 대처행동( $\beta=.14, p<.05$ )에, 자기비난은 소극/회피적 대처행동( $\beta=.20$ )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동이 부모갈등 상황에서 자신이 부모사이에 끼어서 난처함을 많이 지각할수록 스트레스 상황에서 공격적이고 소극/회피적인 대처를 하고, 부모갈등이 자신의 탓이라고 높게 지각할수록 스트레스 상황에서 소극/회피적인 대처를 하게 됨을 의미한다. 즉 부모갈등에서 삼각관계의 위치에 놓였을 때 아동은 부모의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의견을 동시에 들어야 하고 부모 모두에게 정서

<표 1>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에 대한 부모갈등의 회귀분석

부모갈등	스트레스 대처행동	적극적	공격적	사회지지 추구적	소극/회피적
		$\beta$	$\beta$	$\beta$	$\beta$
빈도		-.08	.04	.00	.14
강도		-.01	.03	.01	.04
내용		-.04	.05	.01	-.14
자기비난		.04	.00	.12	.20**
지각된 위협		.09	-.02	.10	.08
삼각관계		.07	.16**	.07	.14*
R <sup>2</sup>		.14	.22	.09	.30
F		8.57***	5.53***	3.55***	8.38***

\* $p<.05$  \*\* $p<.01$  \*\*\* $p<.001$

적으로 심리적으로 연결해야 하므로 부담감과 스트레스를 받아 공격적이고 소극/회피적인 대처행동을 보이게 되고, 부모갈등이 자신의 탓이라고 생각하면 아동이 위축이 되어 소극/회피적인 대처행동을 보이게 된다. 부모갈등은 아동의 적극적 대처행동, 공격적 대처행동, 사회지지 추구적 행동, 소극/회피적 대처행동 변량의 14%, 22%, 9%, 30%를 설명하였다.

#### 2. 부모관련 스트레스가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에 미치는 영향

부모관련 스트레스가 아동의 스트레스에 어떠한 영향력을 가지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부모관련 스트레스는 공격적 대처행동( $\beta=.26, p<.001$ )과 소극/회피적 대처행동( $\beta=.19, p<.001$ )에 유의한 설명력을 가지고 있었다. 이는 부모관련 스트레스를 많이 겪는 아동이 스트레스 상황에서 공격적이고 소극/회피적인 대처행동을 보임으로써, 부적절하고 부정적인 대처행동을 추

〈표 2〉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에 대한 부모관련 스트레스의 회귀분석

스트레스 대처행동	적극적	공격적	사회지지 추구적	소극/회피적
	$\beta$	$\beta$	$\beta$	$\beta$
부모관련 스트레스	-.02	.26***	.05	.19***
R <sup>2</sup>	.09	.31	.10	.24
F	3.26***	13.81***	3.55***	9.46***

\*\*\* $p < .001$

구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아동이 지각하는 부모관련 스트레스는 아동의 적극적 대처행동, 공격적 대처행동, 사회지지 추구적 행동, 소극/회피적 대처행동 변량의 9%, 31%, 10%, 24%를 설명해 주었다.

### 3.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이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에 미치는 영향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이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중다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부( $\beta = .32, p < .001$ )와 모( $\beta = .16, p < .01$ ) 모두와 자녀 간의 의사소통이 적극적 대처행동에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동이 부모와 개방적인 대화를 많이 할수록 스트레스 상황에서 적극적 대처행동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부-자녀 간 의사소통( $\beta = .17, p < .01$ )은 또한 아동의 사회지지 추구적 대처행동에도 유의한 영향력을 나타냈다.

본 연구결과에서 특히 주목할 것은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에서 어머니보다 아버지의 영향이 아동에게 적절한 스트레스 대처행동을 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점이다. 부모자

〈표 3〉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에 대한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의 회귀분석

스트레스 대처행동	적극적	공격적	사회지지 추구적	소극/회피적
	$\beta$	$\beta$	$\beta$	$\beta$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32***	.07	.17**	.10
모-자녀 간 의사소통	.16**	.00	.07	.13
R <sup>2</sup>	.35	.08	.20	.10
F	14.79***	3.15***	8.45***	5.12***

\*\* $p < .01$  \*\*\* $p < .001$

녀 간 의사소통은 아동의 적극적 대처행동, 공격적 대처행동, 사회지지 추구적 행동, 소극/회피적 대처행동 변량에 대해 35%, 8%, 20%, 10%의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 4.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에 대한 부모갈등, 부모관련 스트레스,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의 영향

부모갈등, 부모관련 스트레스,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이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에 미치는 상대적 설명력을 파악하기 위하여,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을 종속변인으로 한 위계적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sup>1)</sup>. 본 연구에서는 종속변인인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 중에서 두 개의 독립변인이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는 하위유형인 공

1)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 방식으로 독립변인들의 다중공선성을 검토하였다. 첫째, 독립변수들간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는데, 이 변수들 간에 다중공선성을 의심할 수준의 높은 유의미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둘째, 회귀식에 포함된 독립변인들 간의 다중공선성 여부를 분산확대인자(VIF: Variance Inflation Factor)를 통해 검증하였다. 그 결과, 이 수치가 1에 근접하여 다중공선성을 우려할 수준은 아닌 것(이근희, 2001: 419-420)으로 나타났다.



격적 대처행동과 소극/회피적 대처행동에 대해서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공격적 대처행동에 대해서는 1단계에 부모갈등 중 표준화된 회귀계수( $\beta$ )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난 부모갈등 중 삼각관계를 투입한 후, 2단계에 표준화된 회귀계수( $\beta$ )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난 부모관련 스트레스를 투입하였다. 또한 소극/회피적 대처행동에 대해서는 1단계에 부모갈등 중 표준화된 회귀계수( $\beta$ )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난 부모갈등 중 자기비난과 삼각관계를 투입한 후, 2단계에 표준화된 회귀계수( $\beta$ )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난 부모관련 스트레스를 투입하였다. 본 연구에서 부모갈등 변수를 먼저 투입한 이유는 첫째, 선행연구에서 이 변수가 아동의 스트레스와 스트레스 대처행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모관련 변수 중에서도 특히 주목을 받는 변수이기 때문이며(김소향, 1994; 박수잔, 1997; Cummings et al., 1981, 1989; Davies & Cummings, 1994; Emery, 1982; Grych, Seid, & Fincham, 1992; Harold & Conger, 1997), 둘째, 이 변수는 아동의 부모인 부부 사이의 갈등 상황에서 아동이 지각하는 내용과 관계됨으로써, 부모가 실제의 생활 장면에서 아동에게 요구하여 발생하는 직접적인 성격의 부모관련 스트레스보다는 간접적이고 배경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다.

1) 아동의 공격적 대처행동에 대한 부모갈등 및 부모관련 스트레스의 설명력

아동의 공격적 대처행동에 대한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비교하기 위해, 표준화된 회귀계수( $\beta$ )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난 변인들을 중심으로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표 4>에 제시하였다.

<표 4>에서 알 수 있듯이, 1단계에서 부모갈등 중 삼각관계는 아동의 공격적 대처행동의 변

<표 4> 아동의 공격적 대처행동에 대한 부모갈등, 부모관련 스트레스의 위계적 회귀분석

변 인	1단계	2단계
	$\beta$	$\beta$
부모갈등(삼각관계)	.25***	.18**
부모관련 스트레스		.34***
$\Delta R^2$	.33***	.11***
$R^2$		.44
F	12.85***	0.68***

\*\* $p < .01$  \*\*\* $p < .001$

량에 대하여 33%의 설명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2 단계에서 부모관련 스트레스가 추가되어 설명력은 11%가 증가하였다. 투입된 독립변인들은 아동의 공격적 대처행동 변량의 44%를 설명해 주었다. 또한 아동의 공격적 대처행동에 대하여 삼각관계( $\beta = .18, p < .01$ )와 부모관련 스트레스( $\beta = .34, p < .001$ ) 모두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하면, 부모 사이에서 삼각관계에 있을수록, 그리고 부모관련 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할수록 아동은 공격적으로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전체적으로 변인들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비교해 보면 부모관련 스트레스가 공격적 대처행동에 더 큰 영향력을 보인다.

2) 소극/회피적 대처행동에 대한 부모갈등 및 부모관련 스트레스의 설명력

아동의 소극/회피적 대처행동에 대한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비교하기 위해, 표준화된 회귀계수( $\beta$ )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난 변인들을 중심으로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표 5>에 제시하였다.

<표 5>에서 알 수 있듯이, 1단계에서 부모갈등(자기비난, 삼각관계)은 아동의 소극/회피적 대처행동의 변량에 대하여 35%의 설명력을 가

〈표 5〉 아동의 소극/회피적 대처행동에 대한 부모갈등, 부모관련 스트레스의 위계적 회귀분석

변 인	1단계	2단계
	$\beta$	$\beta$
부모갈등(자기비난)	.30***	.28***
부모갈등(삼각관계)	.18***	.16**
부모관련 스트레스		.19***
$\Delta R^2$	.35***	.10***
$R^2$		.45
F	17.97***	14.28***

\*\* $p < .01$  \*\*\* $p < .001$

지고 있었으며, 2단계에서 부모관련 스트레스가 추가되어 설명력은 10%가 증가하였다. 투입된 독립변인들은 아동의 소극/회피적 대처행동 변량의 45%를 설명해 주었다. 또한 아동의 소극/회피적 대처행동에 대하여 자기비난( $\beta = .28, p < .001$ ), 삼각관계( $\beta = .16, p < .01$ )와 부모관련 스트레스( $\beta = .19, p < .001$ ) 모두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동이 부모갈등이 자신 때문에 일어났다고 생각하거나 부모 사이에서 삼각관계에 빠지거나 부모관련 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할수록 대처행동에서는 소극적·회피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반영한다. 전반적으로 변인들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비교해 보면 부모갈등 중 자기비난이 소극/회피적 대처행동에 가장 큰 영향력을 보인다.

이상의 결과를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스트레스 대처행동의 하위유형에 따라 의미 있는 관련 변수들이 각각 다르게 나타났으며, 각 변수의 상대적인 영향력도 행동문제의 하위유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특히 여러 변수들 중에서 부모갈등의 삼각관계 영역과 부모관련 스트레스는 공격적 대처행동과 소극/회피적 대처행동에,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은 적극적 대처행동에, 그리

고 부-자녀 간 의사소통은 사회지지 추구적 행동에 공통적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볼 때,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의 하위영역 중 공격적 대처행동이나 소극/회피적 대처행동 등 다소 부정적인 대처행동은 부모갈등이나 부모관련 스트레스와 관련이 되고, 적극적 대처행동과 사회지지 추구적 대처행동과 같은 보다 긍정적인 대처행동은 부모-자녀 간 개방적 의사소통과 관련이 되는 것으로 보아,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의 하위영역들의 성격이 다르다는 것을 추정해 볼 수 있다.

#### I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결론과 논의를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아동이 지각한 부모갈등 중에서 자기비난과 삼각관계는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아동은 부모갈등이 자기 자신의 탓이라고 생각하면 소극/회피적인 대처행동을 보이며, 부모갈등 상황에서 부모 사이에 끼어 곤란함을 경험할 때 공격적인 대처행동과 소극/회피적인 대처행동을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갈등이 아동의 공격행동, 과잉행동, 미성숙행동, 불안행동, 위축행동 등의 문제와 관계가 있다는 연구 결과(권영옥·이정덕, 1997; Fincham, Grych & Osborne, 1994)와, 아동의 정신건강이 정서 중심적인 대처방식과 관련이 있다고 밝힌 김주연과 김정순(1999)의 연구결과에 같은 맥락에서 해석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부모갈등이 공격적, 소극/회피적 대처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아 이러한 대처행동은 이후 아동의 정신건강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다.

흥미로운 것은 부모갈등을 지각하는 데 있어

서 삼각관계와 자기비난을 많이 경험하는 아동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공격적이고 소극/회피적인 대처행동을 선택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삼각관계는 가족치료 분야에서 주목받는 변수로서, 가족의 구조적 문제, 가족 문제의 세대 간 세습, 강압 과정과 같은 부모와 자녀간의 상호행동 등에서 발생한다(Bowen, 1978; Minuchin, 1974). 부모갈등에서 삼각관계가 아동이 경험하는 가정의 정서적 분위기에 있어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해석할 수 있으며, 아동의 적응 및 행동에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부모-자녀 관계의 매개 역할에 대해서는 후속연구를 통하여 지속적인 규명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아동이 경험하는 부모관련 스트레스는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구체적으로 아동은 부모와 관련된 스트레스를 경험할 때 대체로 공격적인 대처행동과 소극/회피적인 대처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이 전체적인 평균에서는 적극적인 대처행동을 많이 선택하였지만, 부모관련 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할수록 스트레스 상황에서 공격적이고 소극/회피적인 스트레스 대처행동을 나타내는 것은 부모와 아동의 힘의 불균형 상태에서 아동이 직접적인 대처를 포기하는 상황이 발생하거나 공격적으로 발생한다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은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즉 부모-자녀 관계에서 부모와 개방적인 의사소통이 많을 때 아동은 대체로 적극적인 대처행동을 보인다. 그리고 아버지와의 의사소통이 많을 때 아동은 사회지지 추구적인 대처행동을 보인다. 이는 아동에게 부모-자녀 간의 의사소통에서 특히 아버지의 역할이 크고 중요함을 인식시키는 결과이다.

한편 아동은 부모-자녀 간의 상호작용에서 억압받지 않고 자유롭게 사실 또는 감정을 표현

하는 의사소통을 할 때 바람직하고 적절한 대처행동을 사용한다. 이는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이 자녀의 행동발달 및 인성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 결과(서경숙, 1984)와 일치하는 것으로 학령기 자녀의 올바른 발달을 위한 부모의 적극적인 참여와 부모-자녀 대화기술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요컨대,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상황에서 아동을 적절한 대처행동으로 유도하는 데 있어서는 부모-자녀 간의 의사소통이 중요하므로 지금까지도 임상 현장에서 강조되어 왔던 부모-자녀 간의 개방적인 의사소통 훈련과 교육이 필요함을 본 연구를 통해서도 다시 한 번 부각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넷째, 부모갈등의 자기비난, 삼각관계, 부모관련 스트레스,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은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을 설명한다. 아울러 스트레스 상황에서 아동이 나타내는 대처행동은 하위 유형에 따라 그 성격이 다르다. 특히 부모갈등의 자기비난, 삼각관계와 부모관련 스트레스는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하여 공격적이고 소극/회피적인 대처행동과 연관된다.

아동이 스트레스 상황에서 유래되는 정서적 고통을 완화시키려는 노력인 소극/회피적 대처행동을 많이 사용하는 경우, 감정을 통제하거나 스트레스의 원인을 회피하기 위해 다른 사람으로부터 격리되어 고립된 활동이나 스트레스에 대한 부정적 감정을 숨기는 행동을 자주하게 된다. 그러므로 부모갈등 상황에서 자기비난과 삼각관계의 곤란함을 많이 경험하여 소극/회피적 대처행동을 사용하는 아동의 경우에는 스트레스로 인해 야기되는 부정적 감정을 해결하지 못한 채 회피하거나 과잉 통제함으로써 적응문제를 일으키거나 부모-자녀 관계가 위축된다고 추론해 볼 수 있다.

또한 부모갈등의 자기비난과 삼각관계를 높게

지각한 아동이 스트레스 상황에서 공격적인 대처행동을 사용할수록 이후 비행, 반사회적 행동 문제로 이어지게 될 수도 있다. 이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공격적 대처행동을 사용하는 아동에게는 그에 대한 대안적이며 바람직한 스트레스 대처행동이 제시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더불어 이는 공격적인 행동을 사용하는 아동의 경우 공격적 행동으로 인해 가족이나 주위로부터 거부당하게 되기 때문에 이후 비정상적인 또래집단에 가입하게 되어 비행과 같은 행동문제를 보이게 된다는 반사회적 행동문제에 대한 발달적 관점 이론(Patterson et al., 1989)을 통해서도 추론해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제한점을 지니고 있는데, 이를 바탕으로 후속연구가 관심을 기울여야 될 방향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의 하위영역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에 치중하여 성별이나 연령에 따른 세밀한 분석은 시도하지 못함으로써, 복합효과(confounding effect) 등을 배제하지 못하는 단점을 지닌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이를 보완하기 위한 연구대상의 연령과 성별에 따른 구체적인 분석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척도를 Barnes와 Olson(1982)의 PACI(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Inventory)를 번안하여 사용하였는데, 이 척도 중 긍정적인 측면에 주로 초점을 둔 개방적 의사소통만을 측정하였으므로 이 척도의 다른 부분인 의사소통에서의 문제는 살펴보지 못한 단점이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부모갈등에 대한 아동의 보고에 근거하여 분석하였다. 이는 아동의 보고가 부모의 보고보다 아동의 심리적 적응에 더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연구 결과(이민식, 1999)를 따른 것이다. 그러나 부모가 보고한 실제 부모갈

등과 아동이 지각한 부모갈등 정도에는 사실상 괴리가 존재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부모 갈등에 대한 아동의 지각은 아동이 과거의 부모갈등에 노출된 정도, 아동의 기질, 성, 아동의 인지 발달 정도, 갈등이 벌어진 상황에서의 아동의 정서 상태 등과 같은 맥락요인에 의해 달라질 것이라는 가정(Grych & Fincham, 1990)하에, 이러한 맥락요인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하리라고 본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에 미치는 부모 관련 변인의 영향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보다 구체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부모자녀 관계에서의 부모관련 변인 뿐 아니라 부모의 양육태도나 양육에서의 일관성 및 부모자녀 관계의 여러 차원들로 나눈 다른 가족과정 변인들이나 아동 개인과 관련된 변인들의 영향력을 확인해 보는 작업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러한 작업은 후속 연구과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상과 같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가 갖는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기존연구와는 달리 아동이 사용하는 스트레스 대처행동을 다차원적 범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고, 종속변인의 분석에서도 이 범주들을 차별화시켜 다루었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우리나라 초등학교 아동들이 사용하는 다양한 스트레스 대처행동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이해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둘째, 아동의 대처행동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주로 아동의 개인적 요인인 내부 역동적 과정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이에 비해 본 연구는 부모자녀 관계에서의 부모변인과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 간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아동을 둘러싼 일차적 환경인 부모 변인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독립변인 중 아동이 지각하는 부모갈등도 하위영역별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아동의 대처행동을 유익하게 설명하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드러난 정보들은 학교나 임상현장에서 관찰할 수 있는 아동의 부적절한 대처행동을 완화시키기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과 상담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권영옥 · 이정덕(1997). 자녀가 지각한 부부갈등척도(CPIC)의 타당화 연구. **한국아동학회지**, 8(1), 65-80.
- 김경희(1999). **발달심리학-생애발달**. 서울 : 학문사.
- 김소향(1994). 부부갈등에 대한 아동의 감정적 평가와 인지적 평가.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인향(1997).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방식과 어머니와의 의사소통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주연 · 김정순(1999). 학령기 아동의 스트레스, 스트레스 대처행동, 건강문제간의 관계, **대한신심스트레스학회지**, 7(1), 13-22.
- 도현심(1996). 부모의 온정성 및 통제성과 아동의 외로움. **대한가정학회지**, 34(6), 1-12.
- 민하영 · 유안진(1998a). 일상적 생활 스트레스에 대한 아동의 대처행동 척도 개발. **대한가정학회지**, 36(7), 83-96.
- 민하영 · 유안진(1998b). 학령기 아동의 일상적 생활 스트레스 척도 개발. **한국아동학회지**, 19(2), 77-96.
- 민하영 · 유안진(1999a).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지각된 통제감과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 **한국아동학회지**, 20(1), 61-77.
- 민하영 · 유안진(1999b). 학령기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행동 및 아동의 대처행동이 부모관련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7(9), 1-12.
- 박수잔(1996). 부부갈등이 아동의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서경숙(1984). 부의 훈육방식 및 가정결속력이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 성심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은영 · 김경연(1996). 아동이 지각한 스트레스 사건, 스트레스 사건의 경험 빈도, 그리고 스트레스 수준. **대한가정학회지**, 34(4), 33-48.
- 이군희(2002). **사회과학연구방법론**. 서울 : 법문사.
- 이민식(1999). 부부갈등이 아동의 내면화 및 외면화 문제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현정(1997). 스트레스에 대한 아동의 대처행동과 사회적 적응 · 학업성취 및 행동문제. 인하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한미현(1993). 가정의 스트레스 및 부모의 지지에 따른 아동의 행동문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4(4), 33-48.
- 한미현 · 유안진(1995). 한국아동의 일상적 스트레스 척도의 개발. **대한가정학회지**, 33(4), 49-64.
- Ayers, T. S. (1991). A dispositional and situational assessment of children's coping : Testing alternative theoretical model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Arizona State.
- Band, E. B., & Weisz, J. R. (1988). How to feel better when it feels bad : Children's perspectives on coping with everybody stress. *Developmental Psychology*, 24, 247-253.
- Barnes, H., & Olson, D. H. (1982).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and the Circumplex Model. *Child Development*, 56, 438-447.
- Bowen, M. (1978). *Family therapy in clinical practice*. New York : Aronson.
- Causey, D. L., & Dubow, E. F. (1992). Development of a self-report coping measure for elementary school children.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21, 47-59.
- Compas, B. E., Malcarne, V. L., & Fondacaro, K. M. (1988). Coping with stressful events in older children young adolescent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6, 405-411.

- Cummings, E. M., Vogel, D., Cummings, J. S., & El-Sheikh, M. (1989). Children's responses to different forms of expression of anger between adults. *Child Development, 60*, 1392-1404.
- Cummings, E. M., Zahn-Waxler, C., & Radke-Yarrow, M. (1981). Young children's responses to expressions of anger and affection by others in the family. *Child Development, 52*, 1274-1282.
- Davies, P. T., & Cummings, E. M. (1994). Marital conflict and child adjustment : An emotional security hypotheses. *Psychological Bulletin, 116*, 387-411.
- Dubois, D. L., Felner, R. D., Brand, S., Adan, A. M., & Evans, E. G. (1992). A two-year longitudinal study stressful life events, social support, and social problem-solving skills : Contributions to children's behavioral and academic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62*, 583-599.
- Ebata, A. T., & Moos, R. H. (1991). Coping and adjustment in distressed and healthy adolescents.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12*, 33-54.
- Emery, R. E. (1982). Interparental conflict and the children of discord and divorce. *Psychological Bulletin, 92*, 310-330.
- Fincham, F. F., Grych, J. H., & Osborne, L. (1994). Does marital conflict cause child maladjustment? : Directions and challenges for longitudinal research.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8*, 128-140.
- Garnezy, N. (1991). Resilience in children's adaptation to negative life events and stressed environments. *Pediatric Annals, 20*, 459-466.
- Gly-shaw, K., Cohen, L. H., & Towbes, L. C. (1989). Coping strategies and psychological distress : Prospective analyses of early and middle adolescents.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17*, 607-623.
- Grych, J. H., & Fincham, F. D. (1990). Marital conflict and children's adjustment : A cognitive-contextual framework. *Psychological Bulletin, 108*, 267-290.
- Grych, J. H., Seid, M., & Fincham, F. D. (1992). Assessing marital conflict from the child's perspective : The children's perception of interparental conflict scale. *Child Development, 63*, 558-572.
- Harold, G. T., & Conger, R. D. (1997). Marital conflict and adolescent distress : The role of adolescent awareness. *Child Development, 68*(2), 333-350.
- Herman-Stahl, M., & Peterson, A. C. (1996). The protective role of coping and social resources for depressive symptoms among young adolescents. *Journal of Adolescence, 17*, 307-316.
- Lazarus, R. S., & Folkman, S. (1984). *Stress, appraisal, and coping*. New York : Springer.
- Minuchin, S. (1974). *Families and family therapy*. Cambridge, MA : Harvard University Press.
- Patternson, G. R., Babara, D., DeBaryshe, & Elizabeth Ramsey (1989). A developmental perspective on antisocial behavior. *American Psychologist, 44*(2), 329-335.
- Phelps, S. B., & Jarvis, P. A. (1994). Coping in adolescence : Empirical evidence for a theoretically based approach to assessing coping.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3*, 359-371.
- Ryan-Wenger, N. M. (1992). A taxonomy of children's coping strategies : A step toward theory development.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62* (2), 256-263.
- Spirito, A., Stark, L. J., Grace, N., & Stamoulis, D. (1991). Common problem and coping strategies : Reported in childhood and early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0*(5), 531-544.

2006년 4월 30일 투고 : 2006년 7월 11일 채택